



## 하느님께서서는 광야를 통해 우리를 자유로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자매들에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금년에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메시지에 따라 사순 시기를 시작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광야를 통해 우리를 자유로 이끄십니다.” 교황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자유로 불리웠다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를 통하여 예속에서 자유로 건너가는 출애굽을 살도록 불리웠다는 것을 일깨우십니다. 이 부르심은 “곧바로 응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정의 일부로 무르익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자주 과거를 그리워하고 주님과 모세에게 불평하면서 여전히 이집트에 매여 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느님 백성은 벗어나라고 부름받는 견디기 힘든 속박에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전례 시기는 길에서 도약하기 위한 섭리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으로서, 수녀회로서 함께 걸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높이까지 도달했습니까?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를 얽어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각자 안에는 지금도 마음 안에서 주님께서 목적지를 향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길을 분명히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갈망이 타오르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방황합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이집트의 매력”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들을 직면하지 않기 위해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 일상의 평온함을 깨지 않기 위해 우리 규범들에 엄격하게 집착합니다. 아니면 기술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것들과 사회 관계망이 촉진하는 “노력 없는” 행복에 너무 몰두하여 피상적이고 편안한 것에, 현재 우리 사회의 사고방식에 맞는 것에 머물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더욱 하느님께 가까이 가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노력을 보시며 아버지의 인내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약속된 땅으로 우리를 함께 이끌기 위하여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에게 대해 지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예속을 버리라고 주저없이 계속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시기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가로지르고 광야를 지나갈 용기를 가집시다.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 은총의 시기에 호세아 예언자의 말처럼, 광야는 다시 한번 우리 첫사랑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호세 2,16-17 참조).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백성을 형성하시어 우리를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죽음에서 삶으로 건너가는 파스카를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치 신랑처럼 우리 마음에 사랑의 말씀을 속삭이시며 우리를 당신께 다시 한번 이끄십니다.”

어쩌면 많은 이들에게 광야는 건조함, 공허함, 침묵, 하느님의 부재의 상황과 같이서 견딜 수 없는 곳일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광야를 거치셨고 그곳에서 악마의 유혹을 이기셨음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자유의 시험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은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서 우리 힘의 원천인 주님의 현존을 재발견하며, 그분의 사랑의 말씀을 듣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총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탈출 20,2)라는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유혹에 맞서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예속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 단식, 자선이라는 이 시기의 전통적 실천이 하느님 말씀의 깊은 체험으로부터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들의 얼굴 안에서, 특히 고통받는 이들 안에서 그분을 발견하는 것을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단 하나의 사랑입니다.”

수녀회로서, 기쁨과 용기로 그리스도교적인 참회를 살도록 합시다. 우리 주변에서 연대성과 형제애를 드러내도록 촉진시켜 주는 행위들을 실천합시다.

기쁘게 부활에 이를 수 있도록, 큰 희망을 품고 사순 시기를 살도록 합시다. 그리스도께 일치하여 길을 걸어갑시다. 그분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신 것은 또한 우리의 건너감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기쁨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데에 지칠 줄 모르도록 합시다.

형제의 포옹과 기도를 보냅니다.

*Asunción González O.P.*

총장 M<sup>a</sup> Asunción González, O.P. 수녀

